이덕일의 '역사의 창'

조선 승지들의 자존심

우리는 근대 또는 현대라는 미명 아래 우리 조상들이 만든 국가 운영시스템을 전 근대적인 것으로 폄하하기 일쑤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우리가 조상들에게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할 사실들이 많다. 그 중 하나가 대통령 비서실 격인 승정원 체제다.

요즘 '비서들의 난'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통령 비서들이 연일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선 실세라는 최순실 씨가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의 대거 교체 사실을 미리 전달받았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국가의 공공성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마저 없다는 실증으로서 국민들에게 배신감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중종 14년(1519) 조광조 등의 사림이 대거 화를 입은 기묘사화는 유명한 사건이다. 그런데 이를 '신무문(神武門)의 변(變)'이라고도 불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신무문은 경복궁의 북문을 뜻하는데, 왜 기묘사화를 신무문의 변이라고도 불렀을까? 광화문 등 다른 대궐문의 열쇠는 임금의 비서실인 승정원에서 관장했지만 신무문만은 내시들의 관청인 사약방에서 관리한 데서 생겨난 이름이다.

조광조 등을 제거하기로 결심한 중종은 홍경주·남곤 등을 몰래 불러 밀지를 내리려고 했지만 승지들이 알면 곤란하다고 생각했다. 조선은 임금이 신하들을 만날 때 승지와 사관이 배석해서 모든 대화를 기록했다. 정치는 하늘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모두에게 떳떳해야 하고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철학에서 나온 법칙이었다. 중종은 승지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내시들에게 신무문을 열게 해서 홍경주·남곤 등을 불러 몰래 만나 밀지를 내렸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중종은 "신무문이 아니라 연추문(延秋門 : 서문)으로 들어오게 했으나 승정원에서는 모른다"('중종실록'14년 11월 18일)라고 변명했다. 내시들과 몰래 일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는 변명이었다. 그러나 영의정 정광필이, "만약 상께서 먼저 일으키신 일이라면 즉시 명백하게 보이셔서 인심이 환하게 풀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중종의 면전에서 과정의 공개를 요구했다. 이날짜 사관(史官)은 "남곤·심정·홍경주 등이…저녁에 신무문으로 들어가 임금을 추자정(楸子亭)에 모셔 의논하고, 도로 나와 연추문으로 들어갔다"고 중종의 변명을 반박하는 기록도 남겼다.

중종이 승지들 몰래 내시들에게 신무문의 문을 열게 시킨 것은 승지들은 기본적으로 선비들이었기 때문이다. 승지들은 자신들이 임금 개인의 사신(私臣)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임금이 내린 명령이라도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면 거부했는데, 이를 '복역'(覆逆)이라고 했다. 승지들은 때로 '복역'이 진정한 충성이라고 여겼는데, '복역'은 일탈이 아니라 승정원의 고유 권한이었다. 임금의 명령이 잘못되었는데도 승정원이 복역하지 않으면 오히려 큰 비판을 받았다.

선조 22년(1598) 승지 윤국형(尹國馨)은 "여러 왕자들이 남의 재물을 빼앗고 청탁하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니 금지시켜야 한다"고 선조에게 진언했다. 선조의 장남 임해군(臨海君) 등이 임진왜란이란 전란을 겪고도 도리어 백성들에게 온갖 행패를 부리자 선조에게 직언했던 것이다.

그러나 선조는 며칠 후 특지(特旨)를 내려 윤국형을 지방관인 상주 목사로 좌천시켰다. 그런데 상주로 떠나는 윤국형의 말머리에 승정원 서리 수십 명이 몰려나와 전별 술잔을 올리면서 "승지로서 수령으로 나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 한탄스럽습니다"라고 위로했다. "사림들이 이 일을 서로 전하면서 아름다운 일로 삼았다"고 '문소만록'(聞韶漫錄)은 전한다.

윤국형은 비록 좌천되었지만 선비의 기개를 지킨 승지라는 영예를 얻었고, 사정(私情)을 억제하지 못한 선조는 용렬한 임금이라는 지탄을 받았다. 지금의 대통령 비서들에게 윤국형 같은 선비의 처신을 요구하는 것은 과할 것이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이 운위되는 21세기에 조선시대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버젓이 진행되는 현실이 조상들에게 부끄러울 따름이다.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의료칼럼

만성두통 다스리려면

민 인 규
무등한방병원 원장

20명 중 1명은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두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통증이 심할 경우 직장생활이나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고, 오래 지속되면 큰 병을 의심해 반복해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잦은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진통제를 남용해 약물 유발성 두통을 겪는 사람도 있다. 이렇듯 만성두통은 여러 방면에서 삶의 질 저하와 사회·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

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다양하다. 보통 머리나 목 부위 질병의 여부에 따라 일차성 두통과 이차성 두통으로 나뉜다. 일차성 두통은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통증의 강도는 매우 높은 경우가 많다. 일차성 두통은 편두통, 긴장성 두통 등이 대표적인데 환자를 괴롭히는 만성두통은 이러한 일차성 두통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인 질환이 있는 이차성 두통은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대부분 감별해 낼 수 있고, 드물긴 하지만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때에는 CT나 MRI 등의 정밀검사를 통해 확진할 수 있다.

편두통은 젊은 여성에게 자주 발생하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다. 대개 한쪽에서 시작하고 박동성으로 나타난다. 한 번 시작하면 수시간에서 수일까지 지속되고 메스꺼움, 구토를 동반하기도 한다. 통증의 강도가 높은 편이라 두통 발작 시 일상생활이 힘들고 진통제로 잘 조절되지도 않는다.

긴장성 두통은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으나 스트레스, 피로, 과로, 수면부족 등에 의해 자주 발생하고 머리를 둘러싼 근육, 근막에 기능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어 진다. 주로 20~40세 인구에서 흔하게 나타난다. 환자는 일반적으로 압박감, 조이는 듯한 느낌, 띠를 두른 느낌 등을 양측성으로 호소한다. 만성으로 갈수록 편두통과 긴장성 두통이 혼합된 양상도 나타난다.

한의학에서는 두통의 원인을 두경부 기혈의 순환이 되지 않는 경우와 기혈이 부족한 경우, 그 외에도 풍, 한, 습, 열사 등과 같은 외부의 영향(바이러스, 기온의 변화 등)과 칠정울결(스트레스)로 인한 경우, 담(소화장애 동반), 어혈(외상후)과 같은 병적 산물로 인한 경우 등으로 분류한다.

보편적으로 초기의 두통은 통증이 극렬하고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경우로 기혈의 순환 정체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만성화되면 통증이 은은하고 소화장애 등의 전신장애를 같이 호소하게 된다.

한의학에서는 침, 뜸, 부항 치료를 이용해 두·경부의 경락을 소통시켜 두통을 치료한다. 치료 효과를 올리기 위해 약침 치료를 하기도 한다. 이중 홍화약침이 만성두통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 작약감초탕약침이 응용되기도 한다. 또한 조등산과 같이 긴장성 두통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한약이나 오수유탕과 같이 편두통에 효과가 있는 한약을 투여해 자각증상을 치료한다.

검사를 하거나 자세평가를 통해 경추부의 구조적 문제가 보이는 경우에는 추나를 통해 두·경추부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구조적 문제를 교정하기도 한다.

생활습관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 두통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과 상황은 피하고 카페인, 술, 담배, 피임약 등은 절제해야 한다.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칭을 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한다. 진통제 복용을 중단하고, 한의학적 치료를 지속하면서 생활습관을 교정하면 두통의 횟수가 감소하고 동반되는 자각증상이 호전된다.

가정에서 만성두통에 응용할 수 있는 간단한 지압법도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고개를 숙였을 때 가장 볼록 튀어나온 뼈와 어깨 끝을 일자로 연결한 선의 중간지점인 '견정혈'(어깨), 귀 뒤 튀어나온 뼈와 뒷목사이의 움푹 들어간 곳에 있는 '풍지혈' 관자놀이 부근의 '태양혈' 등을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시계방향으로 원을 그리듯이 돌리면서 3초~5초 정도 눌러주는데, 한번에 10회 정도 시행한다. 경혈점을 지압할 때에는 필요 이상으로 힘을 주어 아프게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눌러주면 된다.

기 고

섬진강은 흐르고 있다

이 상 직
구례 극단 마을 대표

구례에 내려온 지 벌써 7년입니다. 극단 마을을 꾸린지도 5년이 되었고요. 요즘은 가을 공연 연습이 한창입니다.

이탈리아 작가 다리오포의 '안내놔? 못내놔!'를 연습중인데요 제목은 '슈퍼마켓 습격사건'으로 살짝 바꿨답니다. 다리오포는 노벨상 수상작가입니다. 코미디의 대가로 불러도 손색이 없죠. 단순히 코미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 현실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본래 코미디라는 것이 풍자와 해학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니 당연하기도 하겠지만 참 명작이다 싶은 게 대학 연극반 시절 이 작품을 만났을 때나, 2013년 극단의 세 번째 공연으로 올렸을 때나, 다시 공연을 준비하는 지금이나, 작품이 주는 재미와 감동이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의성을 잃어버리는 작품도 많은데 이 작품은 오히려 더 생생하게 현실을 이야기하고 인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례 극단 마을의 단원들은 대부분 구례에서 살고 있는 지역민들로 아마추어들인데요. 4년 전에, 처음 무대에 오른 '초짜 배우'들이 이 작품을 소화하기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했고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따듯한 격려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작품이 품고 있는 깊이는 다 표현할 수도 없었고 어쩌면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꼭 다시 이 작품을 하고 싶었습니다. 구례라는 작은 시골마을에서 출발한 아마추어 극단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그때 나누지 못했던 작품의 감동을 이제 다시 관객과 나누고 또 보여주고 싶은거죠. 작품이 갖고 있는 힘과 함께 그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시골배우들의 열정과 저력을 말입니다.

그런데 연습실 풍경을 보면 꼭 구례 사람만 있지는 않습니다. 작품의 주인공 죠반니역을 맡은 배우는 구례 토박이입니다. 상대역이자 여자 주인공 안토니아역을 맡은 배우는 2년 전 귀촌해 작년에 처음 연극을 접했는데요. 이 많은 대사를 어떻게 외우냐며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인공들인 루이지, 마거리타 부부는 순천사람들이 맡았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운 순천 와온 해변가에 위치한 '사랑어린 배움터'(대안학교)의 연극 수업을 통해 시작된 인연이 수년째 이어져 이제는 극단 마을과 함께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 루이지 역을 맡은 순천 친구는 죠반니 역을 맡은 구례 토박이 배우와 함께 최다 출연배우 1위를 다투고 있고 마거리타 역을 맡은 순천 배우는 지난해 극단 마을 정기공연 '구례! 우리읍내'를 통해 처음 연극을 접했는데, 연극이 일상으로 묻혀 가던 자신의 내면을 크게 변화시켰다며 엄청난(?) 각오로 다시 작품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명입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어렵죠?"

그리고 일인다역으로 즐거움을 선사해 줄 배우는 '서울 촌놈'(?)이라고 불립니다. 구례 배우들은 "서울 것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촌놈"이라고 여긴답니다. 보험왕까지 차지했던 '서울 촌놈'은 연극이 하고 싶다며 돈벌이까지 내던지더니 기어코 구례와 서울을 오가며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단역인 순경역을 맡은 배우는 고향인 구례로 얼마 전에 귀향을 했는데요. 우연히 극단 마을 연극 포스터를 보고 "아니, 구례에도 연극이 있나?" 하고 극단 마을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거리타 역을 두고 치열했던 오디션 경쟁에서 고배를 마신 조연출은 마냥 연극이 좋은가 봅니다. 그런데 조연출도 분명 어느 도시에서 '한가락' 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 그렇지 제 얘를 빼먹었군요. 저는 충청도 촌놈인데 서울서 한 20년 연극하다 농사지으며 연극한다고 구례 땅을 밟았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각기 다른 길로 구례에 오고 또 저마다 다른 때에 구례에 이르러 어느 날 극단 연습실에 모여서 한편의 연극, 한 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이 풍경을 가만히 뜯어보면 무엇인가 닮았다는 생각이듭니다. 여러분은 혹시 짐작이 가세요? "세상살이가 다 그렇지"하고 보면 저마다 닮은 게 떠오르겠죠. 저는 매일 무심히 지나다니는 길 옆으로 유유히 흐르는 섬진강과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골 저 골에서 아주 오래전 그리고 바로 조금 전에 합류해 한 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합류하기 전에도 굽이굽이 제 사연이 한 가득 일 테죠? 지금 만나서도 또 굽이굽이 서로 사연을 부둥켜안고 흘러갑니다. 아! 그래, 섬진강과 같구나. 섬진강이 그러하듯 우리도 아무렇지도 않게 흐르고 흐르자….

뭔가 그럴듯하게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 연습 시간이 코앞 입니다. 연극 보러 오십시오. 아! 맞아요. 그래도 섬진강은 막히지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 시간은 11월 10일~13일 주중 오후 7시 반, 주말 4시 장소는 구례문화예술회관.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철저히 파헤쳐야

청와대 비선 실세로 지목되고 있는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확산되고 있다. 매일 쏟아지는 최 씨의 국정 개입 정황을 보면 이 나라 국민인 게 부끄러울 정도다.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구속된 박관천 전 경정이 재작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우리나라 권력 서열은 최 씨가 1위, 정윤회 씨가 2위,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이 이제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안보·경제 위기에 이어 국기마저 무너져 내렸으니 사실상의 국가 비상사태라 할 만하다.

이에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 씨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검찰은 26일 최 씨와 차은택 씨 등 핵심 수사 대상자 집과, 두 재단 사무실, 전경련 등 9곳을 동시에 압수 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최 씨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를 확보해 안에 든 박 대통령의 연설문 등 관련 파일을 분석 중이다. 또 그동안 전경련 임직원과 두 재단 관계자, 재단의 설립 허가에 관여한 문화체육관광부 과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 입장에서는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당혹스러울 수도 있다. 실제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검찰의 지금까지 수사는 믿음직스럽지 못했다. 초동수사는 본질 주변을 빙빙 돌았고 이날 압수 수색도 고발 27일 만에 이뤄진 것이었다. 이미 최 씨는 잠적한 상태고 불법·탈법을 입증할 증거 상당수는 사라졌다는 지적이 많다. '뒷북' '보여 주기식' 압수 수색이란 비판을 받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검찰 수사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 및 자금 유용과 최 씨의 개인 비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특검을 도입하는 데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이 도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역대 특검 수사 결과 국민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은 적이 없다. 그만큼 특검 수사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검찰은 특검 도입 여부와 관련 없이 최 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반드시 규명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성역 없는 수사로 검찰의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 박 대통령도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전적으로 수용하고 필요하다면 조사도 받아야 할 것이다.

한빛원전, 교체보다는 결함 규명이 먼저다

한국수력원자력이 65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한빛원전의 증기발생기 조기 교체를 준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증기발생기 결함의 원인 규명도 없이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관막음 제한치 완화를 시도하더니 이제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부품을 교체하겠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오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빛 3·4·5·6호기 증기발생기 8대를 교체할 계획이다. 한빛 5·6호기가 2002년, 한빛 3·4호기가 1995,1996년 각각 가동에 들어간 것을 감안하면 설계 수명(40년)이 절반이나 남은 시점에서 교체한다는 얘기다.

한수원 측은 안전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설명한다. 그동안 환경단체 등이 꾸준히 제기해 온 재질 문제로 인한 세관 결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한수원의 재정 부실화 및 전기생산 원가 절감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런 조치가 증기발생기의 결함에 대한 규명 없이 추진된다는 점이다. 근본적인 진단은 생략한 채 세관 재질 결함으로 단정해 설계수명이 절반이나 남은 고가의 장비를 교체한다는 건 전형적인 혈세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만약 그러다 또다시 결함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건가. 한수원은 무조건 교체만 생각할 게 아니라 결함 원인을 확실히 규명한 후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無 等 鼓

음유시인

뇌종양 진단을 받은 마틴과 골수암 말기 환자 루디. 병원에서 몰래 빠져나온 시한부 인생의 두 남자는 차를 훔쳐 여행을 떠난다. 한 번도 바다를 본 적 없는 루디를 위한 생의 마지막 여행이다.

영화 '노킹 온 헤븐스 도어'(1998)를 본 사람이라면 이 바보 같은 두 남자의 슬프면서도 유쾌한 여정을 따라가며 함께 울고 웃었을 것이다. 잊을 수 없는 건 테킬라와 담배, 바람 세찬 잔뜩 흐린 날의 바다, 그리고 두 사람의 등 뒤로 흐르는 노래다. 많은 이들이 '내 인생의 영화'로 꼽기도 하는 이 작품의 노래는 'Knockin' On Heaven's Door'. 밥 딜런 곡으로 영화에서는 독일 그룹 'Selig'의 버전이 흐른다.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 물속으로 나는 비행기/ 하늘로 나는 돛단배/(중략)/ 한여름에 털장갑 장수/ 한겨울에 수영복 장수/ 번개 소리에 기절하는 남자/ 천둥소리에 하품하는 여자"

특이한 가사가 인상적인 김광석의 노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의 원곡이 밥 딜런의 'Don't Think Twice It's All Right'라는 걸 최근에야 알았다. '바람만이 아는 대답'으로 친숙한 'Blowin' in the Wind'도 한참을 흥얼거렸다. 밥 딜런의 노벨 평화상 수상 소식에 오랜만에 나처럼 그의 노래를 찾아 들은 이들이 많았을 거다.

우리나라의 '음유시인'을 다룬 기사들도 많이 나왔다. 김민기, 김광석, 전인권, 한대수 등이 언급된 기사를 보고 떠오른 게 조동진이었다. '겨울비', '작은 배', '행복한 사람' 등이 실린 음반 '조동진'(1979)은 '한국대중음악 100대 명반'에서 39위를 차지했다. 1위와 2위는 들국화 1집과 유재하 1집이었다. 평론가 최규성은 그를 '삶을 관조하는 서정적인 노랫말로 세상과 교감하는 음유시인'이라 했다.

조동진이 20년 만에 새 앨범을 낸다는 소식이다. 11월 8일 '그렇게 10년', '나무가 되어', '섬 안의 섬' 등 10곡을 발표한다. "기타를 집어넣는 데 10년, 다시 꺼내는 데 10년 걸린 셈이네"라는 그의 말처럼 참 오랜만이다. 한때 위안받았던 그의 곡들의 감성을 새 음반에서도 다시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